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통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8호 [주제 제25271호] 주제 105 (2016)년 5월 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대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위와 전투적 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표시하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領導자를 높이 모시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강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우리 당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불멸의 통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루고 인민의 리상을 및 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시대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반미 투쟁의 전초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 에로 향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억척불변의 선군정치는 정의와 평화,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 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높이 중증철

철결 쌍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천만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표시하게 될 것이다.

대회는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과 전진, 최후승리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주석단 배경에는 우리 당의 상징인 조선로동당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회장 뜻곳에 당기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당과 온 사회를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당마크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임시 단결》, 《백전백승》이라는 글말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결의권대표자들과 발언권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당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당, 무역,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당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일본조선 인축하단과 제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체적인 예지와 비범한 평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혁사와 전통을 끝없이 및내이시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러와 같은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디합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직하게 맡들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일군들과 근로자들, 동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를 선언하시자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영남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네원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김정은동지를 대회집행부에 높이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과 절대적인 충성을 담아 대회참가

자들이 터쳐올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대회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동지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대복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 양형석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최영림동지, 리수용동지, 김덕준동지, 김용진동지, 리무영동지, 리철만동지, 리일환동지, 리만건동지, 안정수동지, 최상건동지, 리영래동지, 김정일동지, 김종협동지, 김만성동지, 흥인법동지, 박도춘동지, 리병철동지, 주규창동지, 조춘룡동지

주석단에는 지난 기간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표들이 자리잡았다.

또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전평양지부 대표, 부영우 제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차상보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단장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정



당 제 7 차 대 회 에 서 개 회 사 ■ 하 시 는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김 정 은 통 지

천에 하는 대표자동지들 !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한 끝까지 헌신하는 혁명의 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합하는 충정과 열화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 신위한 김일성동지와 함께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도약기가 절묘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전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전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접증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전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 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도록 정세를 형세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부정과 압력, 재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걸마저 광고로 가로막아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증침침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단결의 중심, 평도의 중심으로 밟아들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끙쳐있으며 후호의 주저와 흥오도 없이 혁사의 쪽장을 맞았습니다.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흥하고 수령님들께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한 정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전합세력의 반공화국암살작전을 걸어마다 첫부시며 사회주의붉은기, 혁명의 전위물을 깊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널을 아로새겨울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로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정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절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미니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정도에 솔을 지닌 불懈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청의 70일 전투를 힘 있게 빛여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없는 혁명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 전투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 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고동력을 힘 있게 빛여 급격한 생산성장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경제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식의 혁명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성양양의 거세한 일풍을 일으켜 상반년도,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뚜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민생활황상에 크게 이미지 할수 있는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짚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율혜의 장엄한 서포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편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 전투의 대승리를 결정되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궁지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혁명적열의로 실장을 불태우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대전군을 힘차게 벌립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파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당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로 사회주의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떠리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뜬을 억세개를 어깨에 메고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애국의 대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제 대표자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전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인민들과 통일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 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연구조직들, 친선 및 협대성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로선과 투쟁파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혁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4,677명의 결의권대표와 200명의 발언권대표자선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423명, 군로단체일군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8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가운데 녀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혁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



1일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1일 회의에서 조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2일 회의에서 계속된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과 나이제리아련방
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바사르 알 아바
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
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
니를 6일 땀땀 흘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
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우리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
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예 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오순마진데에 드워드 둘라
포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임시대
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
과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오순마진데에 드워드 둘라
포 주조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

리나국가 특명전권대사, 무관단 단장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 경제 및
무역참사단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

들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
관화국, 이란이슬람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카보자왕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련방공화국, 인티아공화국의 특명전권대

사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필리핀, 러시아
시와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사무소, 세계
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에
무역참사단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

아이란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나이제리아
련방공화국, 벨가리아공화국의 린시대리
대사들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인민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전강을
삼기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등의 글발
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력사에 특기 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1면에서 계속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반제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와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여온데 대하여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제7차대회 앞으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에 온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각계 인사들 그리고 주조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 참사단,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부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와 선물, 메달, 명예칭호, 상장들을 드린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또한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여러 나라의 정당들, 당수들, 친선 및 현대성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각계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대회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서기부는 다음과 같다.

김희래동지, 민병춘동지, 홍광순동지, 리정현동지, 대형철동지, 박춘남동지, 정인국동지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제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리는

축하문을 부영옥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단장, 차상보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단장이 링록하고 축기들을 정중히

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증정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는데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파총정의 70일 전투에서 빛나는 혁혁적위훈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대회 의정을 승인하였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주며 함께 대하여
5.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력사에 특기 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동지

나는 1980년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후 36년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주체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김일성대원수에서 해방후부터 견지하여오시고 김정일대원수에서 이어오신 투쟁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기간 조선인민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로드맵을 승리적으로 명도하여 조선파 조선인민을 당당한 지위에 올려세웠습니다.

당신께서 조선을 명도하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더욱 통일단결되고 강력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절승불패의 력량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계속되는 도전을 이겨내고 선군파 원리마련으로 위력한 혁명의 보루로 전면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선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귀국의 투쟁에 전적인 현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인 민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데서 실패한 자들의 마지막수단으로서 우리는 이 부당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싸우는 귀국지도부와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굳은 현대성을 보여면서 귀 당 제7차대회가 조선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할 것을 축원합니다.

친수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랍사회부를당 지역비서
바샤르알아сад

2016년 5월 6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2016년 5월 6일에 개최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하여 나자신과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각하와 그리고 귀 정부와 인민과의 훌륭한 쟁투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각하께 앞으로도 건강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치숙적인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위원장
요웨리카구타무세베니

2016년 5월 5일

캄팔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하여 귀 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형제적이며 뜨거운 인사를 보내면서 당신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 당이 당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사회적안락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세시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귀국인민이 중요한 사회경제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꾸바공산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의 길로 범함없이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전체 꾸바인민의 단결과 민족적독립,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업방법과 작품을 완성하며 경제방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여년의 뼈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려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바입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2016년 5월 4일

아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당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하여 예하교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당신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를 키다란 성과와 빛나는 위훈으로 새롭게 경축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명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아나야구띠에레스

2016년 4월 28일

메히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각하

저는 2016년 5월 6일에 개최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하여 푸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태너씨에게 쓰두느케쓰동지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당대회는 명백히 귀 당 조선로동당의 진군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하의 달월한 명도밑에 전체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귀 당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충화하게 될것이며 부흥하고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학교한 기초로 될것입니다.

푸고로동당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강화될것이라 는것을 확신합니다.

제1비서동지

아울러 저는 이번 당대회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동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숭고한 전투적경의를 표합니다.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페에르온글로

2016년 4월 30일

브라자벌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각하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하여 저자신과 그리고 우간다전국항쟁운동을 대표하여 당신께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권당으로서 조선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헌신적인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경제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당 제7차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귀 당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총비서

쟈스틴카슬레루룸바

2016년 5월 2일

캄팔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

오늘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대암을 이끌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만족반미대결 전에서 헌신과 헌신을 이룩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을 끌어온 존경과 신뢰 속에 우러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전체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희생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어져있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떠나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및나는 조선로동당의 만년대제와 주체혁명위업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답보를 마련하는 역사적계기로 됩니다.

세계정당정치사에서 절승불패로 유일무이한 조선로동당의 역할에 일광번개 자유를 세기며 김일성민족과 김정일조선, 김정은천하제일강국의 광휘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훨훨한 설계도가 펼쳐지며 절광제한 역사적시각을 맞이하는 충현파 재일동포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전환과 일대 비약의 계기를 마련해준 조선로동당대회의 긍지높은 띵사를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들이켜보면 배방후 새 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 진행된 창당대회로부터 장장 70여년의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역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진 당대회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하무비의 위대성을 전하여주는 불멸의 기념비로 우뚝 솟아 길이 및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대회들은 당의 창건자이시고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전달과 온사회를 몸전히 무장시키고 당의 통일단결을 만년만세우에 올려세운 역사적평정표였습니다.

당대회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 평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사상정신체계, 조직적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에는 형형색색의 정당들이 수없이 많지만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을 치밀하게 살고 당의 창건자, 영도자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당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대원수님의 당, 조선로동당밖

에 없습니다.

세계《최강》은 자랑하며 미세를 럭사상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에 저학교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군사를 국가의 국사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영예에 수호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대회들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피의에 맞게 가장 뚜렷한 조선과 전략전술들을 제시함으로써 각자와 민중민이 지배하면 조국땅우에 자주, 차별, 차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찌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상과 남북이 현실로 풀려 인류리상사회의 친다운 본보기로 마련한 불멸의 성공담으로 길이 및나고 있습니다.

민족희대의 속чин인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온세계 자주화와 업실현에 불멸의 흥원을 한 조선로동당대회들은 오늘 7천만개에 세계 전보적인 유의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대회의 주석단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모시었던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수령의 위엄계승 문제가 및나게 해결되고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음을 깊이 뿐만 아니라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조선로동당소비, 사회주의의 만세소리로 높이 울려펴지고 있습니다.

필리 이역땅에서 사회주의 조국의 높부신 기적과 번영의 소식,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접할 때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만년로대를 마련하는 결정적계기들로,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역사적분수령으로 및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막고불후의 업적은 조국과 민족의 역사와 물불이 천추만대에 길이 및나 것입니다.

백두산칠세위인들을 떠나서인 당대회 주석단에 높이 모시었던 남다른 행운과 영광을 안고 백전백승의 역사만을 펼쳐온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세성은 오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으로 차운한 차량은 제일고수인 제7차대회를 통하여 온갖 로교와 실행을 다 마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역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및나는 충현파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소우주주시고 이끌어온 것은 제일동포사회도 우리 수령님들께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가꾸어주신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어 바람세찬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신 분도 우리 수령님들이시고 충현파 재일동포들의 소박한 애국지성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며 조국땅 방방곡곡에 수많은 충성비를

들이워주신분도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천하이신 우리 대원수님들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높이 놓은 혁명의 품질을 갖추어온 조선로동당과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에 높이 모신 것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훈장을 조선대학창립 60돐을 맞으며 또다시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충현조직원에 주체의 사상체계, 평도체계를 더 높이 절제히 세우며 천민산악이 알길을 가로막고 만리계량이 휘몰아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조직에 운명의 피줄을 잊고 사회주의 조국과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충현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전개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충현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충현과 재일동포들에게 강령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품질을 빛내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상을 최강의 무기로 틀어쥐고 5대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빌려 불굴의 정신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내외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항해책동을 과감히 물리치고 애국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성돌을 굳건히 다지며 동포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의 생활상변의와 피의를 용호화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참신하게 벌여나감으로써 충현을 광범한 통포군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애국조직으로 더욱 성장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민족교육사업은 충현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데 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발孺하고 민족교육에 전 조직적, 전 통포적인 관심을 돌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충현의 바른행, 애족애국의 제주봉을 끊어놓아나가겠습니다.

충현과 재일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친위를 막강으로 용호하고 최후승리를 위한 조국인민들의 철야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계속 투쟁 있게 이어지게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 역사 창조하는 선군조선인운동의 힘은 꾸 강력하고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힘, 강성번영의 질로 즐기자 제 전진전진 나가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건결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예를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대원수분께서는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인운동의 유물이자 고종으로서 높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질, 애족애국의 질, 강성번영의 질로 즐기자 제 전진전진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적제외교포조직의 품질을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위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건결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예를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대원수분께서는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월 3일 동포들의 민족적전리와 피의를 용호하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주제 80(1991)년 3

